목어

'우리'



2000년 노벨 문학상은 처음으로 중국인에게 돌아갔다. 이미 알려진 바, 개인적으로 문화혁명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1988년 프랑스로 망명해 그곳에서 작품활동을 하고있던 환갑나이의 작가 가오싱젠(高行健)의 '영혼의 산'이 수상작이다. 시원(始原)의 영산(靈山)을 찾아 중국의 산하를 여행하면서 기록한 자전적 여행기인 '영혼의 산'은 실로 고요히 흐르는 물처럼 편안히 읽힌다.

작가는 '영혼의 산'에서 결코 '우리'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라고 말할 때 골 의심에 휩싸이며 '우리'보다 더 기만적인 것은 없다 한다.

"나는 끊임없이 팽창해 가는 이 부자연스럽고 위선적인 '우리'의 사용을 피해왔다. 만약 내가 '우리'를 사용하게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내가 비할 수 없이 비겁해졌거나 헤어날 수 없는 정신적 고갈에 빠졌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작가의 '우리'에 대한 해석이 철학적인 것이었든 정치적인 것이었든 오늘의 한국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 것 같다.

인류라든가 세계 등으로 확장되지 않은 좀은 의미의 '우리'라는 말에는 공동운명과 함께 짙은 배타성이 엿보인다.

특히 한국인에겐 '우리' 의식이 강하다 한다. '우리 집' '우리 동네' 식으로….

한편 '우리'라는 말에는 안도감을 주는 그 무엇이 있다. 결코 나에게 해롭지 않은 같은 편, '우리'는 선(善)이고 그것이 악(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다. 더욱이 '우리는 깨끗하고 정의롭다', 철석같이 믿는 득선의 경지에 들고 보면 다른 편은 모두 악이 될 수밖에 없다. 가오싱젠이 해석한 '우리'에는 그런 뜻도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에는 여러 '우리'들이 위험한 층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크게 확장된 '우리'가 아니면 '우리' 자체가 악의 쪽에 가깝다는 것을 생각케 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김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8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8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4일, 전국 70여개 선원에서 용맹정진에 들어갔던 2500여 스님들이 90일간의 하안거정진을 해제했다. 이날 고불총림, 수덕숭총림, 조계총림, 해인총림, 태고총림, 조계종 특별선원 봉암사에서는 방장 및 조실 스님들이 쉼 없는 정진을 당부하는 해제법어를 내렸다. 법어를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불기 2545년 하안거 해제 방장법어

"자기 마음 한번 보자구요"

고불총림 방장 서옹 스님



青山常蓮步(청산상연보)여
石女夜生兒(석여야생아)로다.
喝(할)

青山(푸른산)은 항상 걸어가고,
돌 계집은 밤에 아기를 낳도다.
할(喝)!

덕숭총림 방장 원담 스님



一物(일물)이 長在天地前(장재천지전)인데
無量佛祖 自倡出(무량불조 자개출)이로다.
東西南北 無處土(동서남북 무처토)한데
忽然突出杖子(홀연돌출장자)로다.
(중략)
한 물건(物件)이 길이 있으되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늘 땅 생기기 이전(以前)에 있었던 물건이요, 옛 부처가 나기전에 있었던 물건이요, 이 육신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물건이요, 이생각 생기기 이전의 물건이라. 한량(限量)이 없는 부처님과 조사(祖師)가 자못 이 낱 가운데에서 출현을 했더라 이말이야. 이 물건을 동서남북 사방, 천지, 하늘 땅 인간 지옥을 다 뒤진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이 한 물건은 찾아볼 수가 없어. 홀연(忽然)히 주장자 머리 위에 돌출(突出)해 있더라. 입을 열면 그르치고 또한 그르치더라.

溪楊住 絲絲綠(계양주 사사녹)하고 後園桃花 片片紅(후원도화 편편홍)한데
三春嘉節 鳥啼歸(삼춘가절 조제귀)하고 絶壁須危 花笑立(절벽수위 화소립)이로다.

시냇가의 푸른 버들은 실실이 푸르고 뒷동산에 도화꽃은 점점이 붉더라. 아름다운 봄이지만 그 새들은 울고 들아가고 절벽이 아무리 위험하지만 그 절명한 꽃은 웃고 섰더라. 대체 이것이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할(喝)!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전략)
금일삼하안거(今日三夏安居) 해제대증은 부처님이 설하신 〈금강경〉 말고 각자가 발견한 자기 〈금강경〉이 있을 것이니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제시하기 바란다. 만일 제시하지 못한다면 석달 동안 먹은 밥 값을 내놔야 할 것이다. 영양(英陽)에는 고추요 한산(韓山)에는 모시가 좋다고 평한다. 발우(鉢盂)에는 자루가 있으면 안되고 조리는 새지 않으면 못쓴다고 했다.

橫看成嶺側成峰(횡간성령측성봉)이라
遠近高低各不同(원근고저각부동)이로다.
不識廬山眞面目(불식려산진면목)은
只緣身在此山中(지연신재차산중)이로다.

가로 보면 고개요 모로 보면 봉우리라. 멀고 가깝고 높고 낮은 것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여산의 참 모습을 모르는 것은 이 몸이 저 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일세.

수연여시(隨然如是)라 여어음수(如魚飮水)에 냉난(冷暖)을 자지(自知)로다.
비록 그러하기는 하나 고기가 물을 마셔봐야 차고 더운 것을 안다.
遂下座(수하좌)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父子夏裏不虛過(부자하리불허과)하니
刺得一雙沒氐靴(자득일쌍몰저화)로다.
直至于今無着處(직지우금무착처)하니
大家赤脚唱田歌(대가적각창전가)로다.

부자가 한여름을 헛보내지 않고서 바닥없는 신 한 켤레 삼아 놓았네.

오늘에 이르도록 쓸모가 없어서 온 식구 맨발로 밭노래를 부른다. (중략)

仰山眼照四天下(앙산안조사천하)거늘
大圓面前倒平地(대원면전도평지)로다.
溈山可謂養子緣(위산가위양자연)이나
不免拦後人脣齒(불면괘후인순치)로다.

앙산은 눈길이 사천하를 비추건만 위산의 앞에서는 평지에서 넘어졌네.
위산은 아들 기를 인연은 있으나 뒷사람들의 시비를 면치 못하리라.

봉암사 전 조실 서암 스님



(주장자를 들어 법상을 세 번 치고 설법하시길)
오늘 법회의 법문은 이 주장자가 다 설해서 마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신지 3천년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은 한마디도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한 법문 가운데 부득이 한마디가 있는데 한 마디 설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 하늘 위나 아래나 오직 자기 자신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말이죠. 혀끝에서 목구멍으로 터져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입 벌리기 전 모든 상념이 있기 전에 모든 법을 이미 다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중생들은 손에 쥐어주고 눈에 보여주고 바짝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중략)

참부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속 자기 마음을 다 찾아쓰면 영원히 해탈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략)

꼬집으면 아프고 부르면 대답할 줄 아는 이 물건이 뭐냐 이겁니다. (후략)

태고총림 중앙선원장 지허 스님



(법상에 올라 한참 후에 주장자를 세 번 치고)
이 주장자에 제 일구(第一句)와 말 후구(末後句)가 있습니다.

삼세제불과 역대전등(傳燈)의 제대조사(諸大祖師)와 일체선지식의 도리가 모두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해제 대증은 이 주장자를 아시겠습니까.

아시면 다시는 결제(結制) 없는 해제요, 사증은(四重恩)을 일거에 다 갚을 것입니다. (중략)

波羅人世事堪悲(파번인세사감비)하니
回首事今涕淚罪(회수사금체루죄)라
山鳥亦知驚客恨(산조역지리객한)하니
隔林啼遜不如歸(격림제손불여귀)로구나

세상일의 슬픔을 견디다 파도 같이 뒤집혀져서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하니 눈물 콧물 흐른다.
산새도 떠나버린 사람의 한을 아는 듯
떨어진 숲속에서 보낸 뒤, 같이 가지 못했다고 흐느껴 우네. (후략)

3급고시 '엄격하게'

조계종 고시위 응시자격 등 강화

조계종 고시위원회가 8일 확정한 3급 승가고시의 교육 프로그램과 응시자격 요건은 교육원의 당초 방침보다 확대 강화된 것이다.

우선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율장정신, 선, 계본강의 등 계 · 정 · 혜 삼학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육기간 중 108배 및 계본독송을 매일 의무화하는 등 계율을 강화한 측면이 짙다.

"행자교육원의 10배 이상 강화해야 한다" "장군죽비를 휘둘러서라도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을 정도로 고시위원들은 한결같이 엄격한 교육을 강조했다. 이는 종단 내 폭력문제 등 최근 들어 승풍이 흔들리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첫 실시부터 엄하게 적용해야만 3급 고시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인식도 크게 작용했다.

선원 4안거 이상 성만
108배 · 독송 매일 의무화

응시자격 요건은 당초보다 대폭 확대됐다.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원에서 정규 4안거 이상 성만'이라는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중 하나를 이수해야만 한다. 특히 선택과정 중 교육부나 종단의 공식교육기관과 사설 교육기관 등의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적 이수를 가능케 한 것은 응시대상자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 교육과정 중 율원, 학림, 승가대학원, 어산작법학교 등 종단 전문교육기관과 특수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해야 한다는 항목에 동국대 불교대학원(주간) 및 문화예술대학원(야간) 석사과정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이수를 포함시킨 것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전문 학문을 종단차원에서 수렴하겠다는 의도다.

수화 · 피아노 교습도
선택과정 이수 인정

또 수화나 피아노 교습, 각종 교양강좌 등 포교에 필요한 분야와 관련해 사설학원의 직능 · 직무 교육과정을 마쳤더라도 선택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키로 함으로써 스님들의 개인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도 비중을 두었다.

다만 직능 · 직무 교육과정의 경우 1년에 40시간 이상 진행되는 강좌에 참여해야 하며, 95년 수계자는 2회 이상, 96년 수계자는 3회 이상, 97년 수계자는 4회 이상, 98년 수계자는 5회 이상을 이수해야만 한다고 못 박아 교육의 질과 양 모두를 만족시키도록 했다. 즉 98년 수계자는 1년에 40시간짜리 강좌를 기준으로 볼 때 5개 강좌에 2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만 선택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연도별로 차등을 둔 것은 먼저 출가한 승려가 가질 수 있는 교육기회가 적은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2001년 사주백과 3.0 출시

사주백과

2001년 8월 개발 출시된 사주백과3.0은 국내 역학프로그램 중 최고의 DATA 내용과 정확도를 자랑하는 전문가용 역학종합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0년간 전통문화연구원의 역학팀에서는 수명의 역학전문가가 직접 DATA 작업 및 프로그램작업을 하여 보다 전문적인 역학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사주백과 3.0 프로그램]

전통문화연구원

⊙ 전통문화 연구원소개
전통문화연구원은 홍익포교 라는 창업이념을 바탕으로지난 10년간 다양한 역학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급변 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연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며, 그 미래는 여러분들의 관심에 따라 한층 더 밝아 질 것입니다.

⊙ 주요연혁
1992. 11. ㈜ 포인트라인 설립
1993. 12. 역학 연구원 설립 「 現 전통문화연구원 」
1994. 07. 역학 소프트웨어 「사주백과」개발 착수
1995. 06. 한국통신 민간 상업 DB업체 선정
1996. 02. 정보화 촉진기금 (정부투자자금) - 사주백과
1996. 10. 유니텔 사주도사 서비스 개통
1997. 02. 사주도사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서비스
1997. 09. 중앙일보 인터넷 사주도사 서비스 개시
1997. 11. 한겨레 인터넷 사주도사 서비스 개시
1997. 12. 역학 소프트웨어「 전문가용 1.0 」출시
1998. 12. 유망 중소 정보 통신기업 선정 - 사주백과
1999. 12. 역학 소프트웨어「 전문가용 2.0 」출시
2000. 08. 사주백과 소프트웨어 - 벤처기업선정
2000. 11. 상호변경 → ㈜ 포인트라인 → ㈜ KOCN
2000. 12. 역학 소프트웨어「 책자용 1.0 」출시
2001. 05 KTF「 핸석넘너 」모바일 운세서비스 실시
2001. 06 실시간 운세 서비스 사업실시 (ARS)
2001. 08 역학 소프트웨어「 전문가용 3.0 」출시

⊙ 보도자료
1994. 08. 27 「 컴퓨터역학 S/W 」 ..... 조선일보
1995. 02. 02 「 역학프로그램 소개 」 ..... 중앙일보
1998. 10. 12 「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 」 ..... 전자신문
1998. 12. 28 「 운세부분 1위 」 ..... 매경경제
1999. 04. 06 「 역학 데이터 베이스 개발 」 ..... 한국경제
1999. 05. 13 「 사주백과 학문적 DB 」 ..... 스포츠서울
2001. 01. 28 「 사주백과 프로그램 소개 」 ..... 서울경제
2001. 01. 26 「 사주백과 책자 S/W 출시 」 ..... 한국일보

사주백과 소개

⊙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1. 역학 전문 상담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한 화면에서 여러 개의 사주를 볼 수 있습니다.
3. 용어사전을 넣어 역학학습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5.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분들도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6. 한 번 감정한 사주의 내용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제작 되어 있습니다.

⊙ 사주백과 체통구성
명리학, 주역, 성명학, 택일, 기문둔갑, 자미두수, 토정비결, 오온육기, 기국산명술, 육효육식점, 궁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주백과의 특징
첫째, 현재 용신(喜神)과 격국(格局)은 자동산정 되며, 용신수정 기능이 있어 천간, 지지, 지장간 등으로 구분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해설(모든 해설이 편집가능).
셋째, 정확한 만세력 (절입일 시각 기준에 의한 사주구성/대운수 산정/썸머타임 적용 & 동경시차 적용, 윤달구분 및 음양력 변환이 가능)
넷째, 원국속의 한 장의 조후, 보좌등의 용신선정, 격국, 대운, 년운, 월운, 일운, 명궁스타 분경성, 지장간의 사령시기, 음양오행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학관련 상담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해설의 경우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주백과 활용
신도프리웅, 신도상담웅, 역학학습웅, 전화상담웅, 출장상담웅, 각종 운세서비스웅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사찰을 비롯한 철학원등 역학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에게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벤트 행사

⊙ 행사1. **가격 할인** (선착순 30명)
정 가 1,250,000원 ⇨ 할인가 500,000원

⊙ 행사2. 2SET 이상 사주백과 구매시 **무료 증정** (선착순 10명)
※ 책자용 역학 프로그램 사주백과
사주풀이, 대운해설, 세입운세, 맛선운세, 신살해설, 명리총운, 성명해설, 토정비결, 성격, 초중말년운, 부모운, 형제운, 배우자운, 자녀운, 성공운, 직업운, 건강운, 점성술, 금돌이 등으로 한화는 운세를 부분별로 출력하여 볼 수 있도록 제작 되었습니다.

⊙ 행사3. 단체구매 (10명 이상)
역학기초교육과 역학전산교육을 무료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 사주백과 프로그램 구입문의
■ 정 가 : 1,250,000원
■ 입금처 : 기업은행 077-039597-01-016
■ 받는곳 : ㈜코리아컨텐츠네트웍크
■ 전 화 : 02-548-2527 / 02-826-2700
■ 인터넷 : www.dosa.co.kr
※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설치 및 사용방법을 설명해줍니다.

역학강좌 안내

과 목 : 명리학, 성명학, 육효, 풍수, 기문둔갑, 택일, 자미두수
A 유형
1. 기 간 : 3개월 집중 강좌 / 역리전산교육
2. 과 목 : 택2 (ex 명리학, 육효)
3. 특 전 : 강의교재 + 사주백과 1SET (역리전산교육)
B 유형
1. 기 간 : 2개월 집중 강좌
2. 과 목 : 택2 (ex 명리학, 성명학)
3. 특 전 : 강의교재
C 유형
1. 기 간 : 1개월 집중 강좌
2. 과 목 : 택1 (ex 명리학)
3. 특 전 : 강의교재

◆ 역학강좌 수강문의
■ 주 최 : 전통문화연구원
■ 강 사 : 전통문화연구위원
■ 개 강 : 수시오집
■ 장 소 : 천컴벤처타워 1층
■ 전 화 : 02-548-2527 / 02-826-2700
※ 개별 방문강의도 가능합니다. 장소 / 시간 / 수강요일 협의 결정

◆ 주요 판매처
사찰, 철학원, 한국역술인협회 회원, 역리사자격검정관리협회 회원, 동양철학협회 회원, 인장협회 회원, 무속협회 회원, 한국통신 · 데이콤 · 하나로통신 · 온세통신의 ARS상담원, 역학학원, 대학 역학관련 사회교육원 학생, 한의사협회 회원, 약사협회 회원, 문화센타 역학생, 승가대학, 역학학술단체, 역학을 취미로 하시는 일반인과 역학동호회 회원들에게 판매 되었습니다.